

# 책이 있는 한바탕 신명의 축제마당

## '91서울도서전 7일간 열려...50만종 돌파 기념 출판인 큰잔치도



91서울도서전 전시장 전경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치러진 '91 서울 도서전이 성황리에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서울도서전으로 개칭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책잔치에는 모두 30만5천명의 관람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도서전에는 1천5백44개사의 출판사가 참가해 90년대에 출판된 신간을 포함해 약 20만종의 도서를 선보였다. 출판산업의 전문화·현대화·정보화를 앞당긴다는 의도에서 기획된 이번

도서전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전자출판시스템과 국내에서 개발된 CD-ROM 등 새로운 출판매체의 제시로 한국출판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짐작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보다 10만여의 관람객을 더 유치한 '91 서울도서전에는 이와 함께 특별전시회도 열렸는데 이중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된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도서전'과 '세계어린이 공책전시회'에서는 80여점의 환경을 주제로

한 만화전시와 재생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공책도 선보여 어린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도 운동주를 비롯한 60명의 국내시인과 시집을 소개한 '독자가 뽑은 베스트 시인잔치' 최남선·이광수 등 작고한 유명문인 99명의 유필원고를 전시한 '명저자들의 육필원고전' 국내외에서 출판된 소형 크기의 도서 1백권을 한자리에 모은 '세계의 미니북 모음전'과 '중국 조선훈 교과서전'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 원화전' '외국우수도서

초대회' 등 책과 관련된 기획전시회가 다채롭게 열렸다.

이번 도서전이 개최된 2일에는 해방 이후 199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도서의 50만종 돌파를 기념하는 '우리책 50만종 출판기념 큰잔치'가 오후 7시 전시회장에서 삼부요인과 출판계 등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 '한글·한국어정보처리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회장 김영택)와 한국정보과학회(회장 김하진)는 지난 18~1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

서 제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를 가졌다.

'인간과 기계와 언어'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의 심리학·전산학·언어학·신경과학·철학 등 인접과학의 학제간 연구에 해당되는 심포지움에서는 ▲전자사전 작성을 위한 한국어·영어간 번역시스템 ▲컴퓨터·타자기 자판 배열 ▲한글의 문장구조 모델화 분석 ▲한글 텍스트 축약 방법 ▲한글문자 인식을 위한 음성데이터 베이스 및 신경회로망 연구 등 5가지 분야에서 3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국역 「리조실록」 국내보급문제 '파문'

### 남북교역-여강출판사 입장 맞서...저작권협약 시급

북한에서 국역된 「리조실록」의 국내보급권을 두고 일본의 구월서방을 통해 올 연말부터 4백권 30질을 수입하기로 한 남북교역주식회사(김승균 일월서각 대표)와 중국 등지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책 2백여권 5백질을 복제해 놓고 있는 여강출판사(대표 이순동)가 무단복제 시비를 벌이고 있다.

남북교역주식회사측이 여강출판사의 복제행위에 대한 일본 구월서방의 항의서한을 공개하면서 발단된 이 사건은 남북간 저작권 협약의 공백으로 빚어진 사건으로 서적교역의 이권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로 여강출판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북교역측이 공개한 서한에서 구월서방은 여강출판사에 대해 "귀

사의 처사는 관례와 인륜도덕 민족적 양심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끝내 「리조실록」을 복제출판해 판매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로부터 이 책의 국내반입과 판매허가를 얻어낸 남북교역측도 "여강측이 거래를 들어 연변대학에서 복제반입해 제작했다"며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했다.

입수경위에 대해 여강측은 "연변대 도서관과 일본 조선대 등에 소장된 것을 부분복사 했다"며 거래수수료를 부인했다. 덧붙여 구월서방은 북한의 출판물 판권에 대한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아니며 일월서각 또한 북한출판물의 독점권한을 가진 것은 아닐 뿐더러 북한 역

진선출판사 720-5990·1

## 신나게! 재미있게! 용감하게!

◆ 교육도감시리즈 제4권 「공작도감」도 곧 나옵니다. 2도 인쇄 / 각 권값 4,800원

‘모험도감’은 자연의 길잡이입니다.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다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만 할뿐.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배낭 꾸리는 법, 텐트 치는 법, 요리법, 야생 동·식물의 세계... 참교육의 한마당인 자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개구쟁이들의 친구 '놀이도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놀이도감」과 뛰노는 즐거운 하루. 화초놀이, 야외놀이, 자연에서 논다. 전승놀이, 만들며 논다 등으로 구성되어 창의력, 순발력, 응용력을 길러주는 재미있는 「놀이책」입니다. 아이들의 생명력은 무한히 뻗어나는 자유로운 힘 — 마음껏 달리고, 던지고, 구르고 미래의 꿈이 점점 커갑니다.



재미있게 자연을 관찰한다

동식물의 모든 것 「자연도감」에는 알쏭달쏭 이상하고 진기한 '자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먹보 너구리, 명가수 종다리, 수질 측정기 수생 곤충 게임목에서 자라나는 개미버섯... 싱그러운 흠내음, 푸르름이 있는 곳, 「자연」— 아이들의 꿈은 커 가고 자연 사랑의 마음도 배웁니다.



시 U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복제출판을 나무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북한 실무자들과 접촉했으나 과도한 가격요구와 저작권에 대한 복한의 물이해로 정식계약이 무산돼 복제했다면서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가 이뤄지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쇄된 전량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기웅씨 중앙언론문화상 수상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이기웅씨가 제3회 중앙언론문화상 출판부문상을 수상했다. 중앙언론문화상은 중앙대가 해마다 신문, 방송, 광고, 출판 등에 공로가 큰 인물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이기웅씨는 미



이기웅씨.

술분야 서적 간행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상의 시상식은 지난 11일 중앙대 개교 73주년 기념식장에서 있었는데 이날 각 부문별 상은 ▲신문부문에 이상우 서울신문 전무 ▲방송부문에 이정석 KBS 제작단 사장 ▲광고부문에 김태환 아시이나항공 전무가 각각 수상했다.

### 서울시문화상 김낙준씨 수상

서울시는 제40회 서울시문화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21일 하오

3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모두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되는 이상의 올해 출판부문 수상자는 김낙준(56. 금성출판사



김낙준씨.

대표)씨이며 기초과학부문은 추천자가 없었다.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언론 김성우(한국일보 상임고문)
- ▲인문과학 원영환(강원대 인문대학장)
- ▲생명과학 최홍재(연세대 의대교수)
- ▲문학 구인환(서울대 사범대교수)
- ▲미술 황유엽(중앙대 예술대객원교수)
- ▲음악 김소희(한국국악협회 부이사)
- ▲연예 임권택(영화감독)
- ▲교육 홍응선(한국교육개발원 전문위원)
- ▲출판 김낙준
- ▲건설 김의원(경원대 대학원장)
- ▲체육 박광순(서울시 양궁협회장)

### 영문데이터 번역프로그램 개발

영문 소프트웨어의 영문메시지나 메뉴를 한글로 번역해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까지 한글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경북 안동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양반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프리즘 한글'. 플로피 디스크 2장에 수록된 이 프로그램은 디베이스, 로터스, PC틀

스 등은 기본적으로 한글을 지원해 주고 그밖에 노턴유틸리티를 비롯한 응용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사진을 작성할 경우만 한글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연락처 706-2220.

### 제1회 '한길추리작가상' 공모

도서출판 한길사는 '한길추리작가상'을 제정,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신인, 기성 구분 없이 있으며 작품분량은 1200매 또는 2400매 안

팍으로 응모기한은 내년 3월말까지이다.

'한국추리문학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기획된 '한길추리'의 창간을 기념하여 제정된 이상의 심사는 한길사와 한국추리작가협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이 맡을 예정이며 당선작 발표는 내년 4월말. 당선작 1편에는 상금 2천만원이 주어진다. 연락처) 547-5724

## 한글날 맞아 '한글의 충격전' 개최

### '세계 속의 한국'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한글의 충격전.

5백45돌 한글날과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부가 주최한 '한글의 충격전-세계속의 한글'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인의 언어로 퍼져가는 한글의 위상과 한글의 예술적 조화 가능성,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10개의 주제별 코너로 구성되었는데, 각 코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시경 코너 : 10월의 문화인물인 주시경 선생의 진영 및 유품, 관계서적 전시
- ▲세계속의 한글-세계 곳곳에 한글로 표기된 간판이나 한국어 강좌 장면을 수집, 전시
- ▲한글디자인 상품 개발을 위한 그림전
- ▲한글 로고 100선정
- ▲외국

인이 쓴 한글전 ▲한글 그리고 예술 : 초대작가 7인의 한글을 소재로 한 현대미술전 ▲한글기계화 : 근대 한글 글자제작의 상징적인 기계 3점 전시 ▲영상코너전 ▲한글팔의 현대화에 일생을 바친 최정호전 ▲25번째의 한글 : 한글의 미래전

### 청소년양서 30권 선정 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는 문화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좋은책 30종을 선정, 발표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에세이 셰익스피어 명작선(여석기)
- ▲산정모지(조정권)
- ▲마음의 바리때(정찬주)
- ▲장미의 이름(움베르토 에코)
- ▲방황하는 내국인(김원우 외)
- ▲꽃 떨어져도 봄은 그대로(김태길)
- ▲별이 되어 내리는 밤(오정희 외)
- ▲인도기행(법정)
- ▲쥬라기 공원(마이클 크리튼)
- ▲서양의 지혜(버트란드 러셀)
- ▲죽음이란 무엇인가(한국종교학회)
- ▲페레스트로이카 소련기행(김영희)
- ▲메카트랜드 2000(존 네스비트)
- ▲사회주의 종말의 여로(기소르망)
- ▲영동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왕연중)
- ▲민족 과학의 뿌리를 찾아서(박성래)
- ▲생체시계(V.M.달만)
- ▲인간의 진화(로베르 끌락)
- ▲살아있는 동물의 세계(김정만)
- ▲새로움의 충격(로버트 휴즈)
- ▲조선세시기(홍석모 외)
- ▲광복전후사의 재인식1,2(이원희)
- ▲일본 근대사를 보는 눈(김용덕)
- ▲러시아사(김학준)
- ▲세계 지식인의 수난사(안병욱 외)
- ▲아랍, 아랍인(사니아 하마디)
- ▲이슬람전집(유종호)
- ▲책나라로 가는 길(김수남)
- ▲천재, 그 창조성의 비밀(김재은)

· · · 이의용 컬러에화집

# · · · 돈이 보낸 편지



신국판 / 153쪽 / 값2,800원



신국판 / 153쪽 / 값3,3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165편이 여기에 있다”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진실은  
단 한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도서 출판 대림기획 TEL : 268-4902 FAX : 277-6946